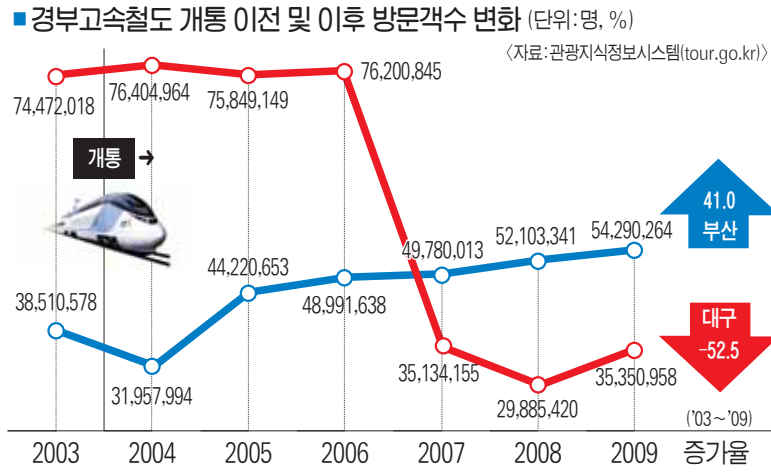


천혜의 자원+착실한 준비... 부산 '나 홀로 KTX효과' 톡톡히 본다

광주·전남 미래 바꿀 3대 役事 완공의 해 (4)

호남고속철 ③ 경부고속철 개통 10년 무엇을 남겼나



자치단체 정책적 노력 중요성 일깨워

KTX경부선이 오는 4월이면 개통 10년을 맞이한다. KTX경부선은 지난 2004년 4월 1단계(서울~동대구) 구간에서 2010년 11월 2단계(동대구~부산) 구간까지 개통되면서 대구·울산·부산 등 영남지역의 문화·사회·경제 등 여러 분야에도 다양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KTX경부선 시대가 열리면서 개통 이전부터 예고됐던 수도권 '역류현상'이 대부분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대구 등은 수도권은 물론 인근 도시에도 경제권이 빨리는 지방 대도시간 역류현상마저 겪고 있다.

올 12월 KTX호남선이 개통되는 광주·전남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KTX경부선 개통 이후 각 분야별로 변화상을 들여다봤다.

◇서울~부산 2시간대=1905년 경부선 철도 개통 당시 17시간이 소요됐던 서울~부산간은 1960년대 무궁화호 6시간대, 1980년대 이후 새마을호 4시간대에 이어 KTX개통으로 2시간 10분대로 쏘아올렸다.

경부고속철도의 총 사업비는 20조 6831억원으로, 1단계 12조7377억원, 2단계 7조9454억원이 투입됐으며, 총 공사기간만 1992년 6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18년 5개월이 걸렸다.

◇제2의 철도시대 견인=경부선 이용객 수는 KTX개통 전까지 2000년 6515만3000명에서 2003년 6016만9000명으로 3년 만에 500만명이 감소할 정도로 하락세를 보였다. 그러나 KTX 1단계 구간이 개통한 2004년 이후 증가세로 돌아섰으며, 고속철 2단계 개통 후 연평균 20%대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교통수단 분담률도 변했다. 서울~대구간을 보면 KTX 개통 전 25%에

이던 고속버스 분담률이 KTX 개통 2년만인 2005년 8%로 급감했다. 20%대를 유지하던 항공도 2년 만에 5%대 이하로 내려앉았다.

◇역류현상 지자체마다 제각각=KTX개통에 따른 부작용으로 주목되는 수도권 '역류현상'은 자치단체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KTX개통을 나름대로 철저히 준비해온 부산은 수도권 '역류현상'은 커녕 오히려 KTX가 정착하는 다른 지방 대도시의 지역경제를 빨아들이는 모습이다. 반면 대구와 울산 등은 수도권 역류현상은 기본이고, 부산 등 다른 지방 대도시로 지역민이 원정쇼핑이나 진료에 나서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부산시에 따르면 KTX 개통 후 서울 시민의 부산활동(방문)은 1.2%에서 3.4%로 2.8배 증가했으며, 부산시민의 서울 활동은 17.2%에서 26.0%로 1.5배 증가했다. 반면 울산·경주지역민의 서울 활동비중은 3%에서 14%로 4.7배나 증가했다. 또 울산·경주시민의 부산 활동도 2.7배나 증가했다.

KTX개통을 전후해 지역별 방문객 수도 차이가 났다. 부산은 2003년 3851만명인던 연간 방문객 수가 2009년 5429만명으로 41%나 증가했으며, 대구는 같은 기간 7447만명에서 3535만명(-52.5%)으로 방문객 수가 반 토막이 났다.

같은 기간 KTX정착여 주변 호텔 이용실적도 부산역 인근은 객실 이용률이 3.2% 증가했으나, 동대구역 인근은 -15.6%였다. 백화점의 매출액 증가율도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2006~2010년 전국 백화점의 경상판매액 연평균 증가율은 7.2%였는데, 같은 기간 부산은 15.3%로 전국 7대 특·광역시 중 가장 높은 반면 대

구는 1.3%로 가장 낮았다.

KTX경부선 개통 후 2년을 기준으로 한 서울지역 병원이용 증가율은 전국 16개 자치단체 중 대구가 44.6%로 가장 높았으며, 부산이 37.4%로 그 뒤를 이었다. 이어 경남 35.4%, 울산 30.0%순으로 증가했다.

다만, 부산은 외부 유출 환자보다, 외부에서 유입하는 환자가 많은 현상을 보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2008년 기준으로 부산에서 서울 등 수도권으로 간 역외유출 환자는 62만3000명이었으며, 부산으로 들어온 유입환자는 106만2000명이었다. 43만9000명의 환자가 부산을 더 찾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부산은 진료비에서만 2396억원의 흑자효과를 봤다.

KTX 정착 도시의 변화 중 공통점도 있었다. 수도권과의 시간적인 거리가 좁혀지면서 MICE(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s), 컨벤션(Convention), 전시회(Exhibition)) 산업이 확대된 것이다. 대구의 경우 2002년 2건에 불과했던 국제회의 개최 건수가 2009년엔 49건으로 늘어났으며, 같은 기간 부산은 21건에서 199건으로 급증했다. 대전도 6건에서 49건으로 늘었다.

◇부산의 비결=부산은 기본적으로 바다 등 천혜의 관광자원을 갖추고 있는 데다, KTX 시대를 착실히 준비한 덕분에 KTX 개통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부산은 KTX경부선 개통 후 방문객이 급증하면서 쇼핑 등 유통산업은 물론 의료 등 지역 경제 전반에 걸쳐 상승효과를 보고 있다. 특히 대표적인 역외유출 산업으로 꼽혔던 의료산업에서도 지방 대도시로는 사실상 일하게 특자를 기록중이다. 이는 부산지역이 KTX 시대를 얼마나 준비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부산시는 실제 KTX개통으로 환자의 역외유출이 심각할 것으로 보고, KTX 2단계 개통을 앞두고 지역 의료계와 의료정책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민관 협력을 통한 대책마련에 집중했다. 또 부산대병원에 암센터와 외상 전문센터, 호흡기질환 전문센터를 건립하는 한편 지역 중·대형 병원을 각 분야별 전문·특화 병원으로 육성 지원하고 있다. 특히 부산시가 암 환자의 수도권 유출을 막기 위해 지난 2010년 7월 개원한 원자력의학원 환자 중 30% 안팎이 울산이나 대구 등 타지역 환자다. 부산시는 현재 국립한방암센터 유치 등도 준비중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KTX개통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정책적 노력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지난 2일 대구시 동구 신암동 동대구역 고객맞이방이 승객들로 북적이고 있다. KTX 경부선 2단계 개통 이후 광주·포항 등 남동해 도시들이 부산·울산과 더욱 가까워지면서 동대구역의 위상은 상대적으로 추락하는 반면 부산·울산의 반사 이익은 점점 커지고 있다. /대구=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2억 영업보증보험 가입업체
조이투어
JOY TOUR CO., LTD
여행길의 즐거움 동반자!!!

대표전화: (062) 234-3222
FAX: (062) 234-314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5가 151-1번지

대표이사 최금환
http://www.joytour.kr
(현금영수증 발행 가능)

지친 나를 위한 힐링여행을 떠나자!
조이투어와 함께 떠나는 힐링여행

★특가 단, 하루!! 1/21★ **겨울방학때 무안공항에서 떠나는 베트남&캄보디아(시애틀)직항!!!** BBC선정한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곳!!!

무안- 베트남&캄보디아 4박6일 1,199,000
※불포함 : 유틸화중료(140,000원), 기사/가이드 팁(\$50), 싱글차지

겨울방학 가족과 함께 떠나는 일본 히타 조이펜션 온천 여행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히타고급 빌리지로 GO, GO!!

1 **선착순 20명**
히타 고급 조이빌리지 숙박
일본 규슈 3박4일
299,000
출발일 1/25,2/3,11,16,19,23
※불포함 사항 : 여권및 개인경비 국내수송

2 **선착순 20명**
특급 전통 료칸 숙박!!!
일본 규슈 3박4일
399,000
출발일 1/25,2/3,11,16,19,23
※불포함 사항 : 여권및 개인경비 국내수송

1 **실연후 떠나는 일본 규슈 3박 4일 (특급 전통료칸 숙박!!!)**
599,000
출발일 1/30
※불포함 : 기사&가이드팁(W30,000)

2 **내맘대로 자유투어 일본 규슈 3박4일**
179,000~
출발일 1/25,2/3,11,16,19,23
※포함사항 : 왕복신박비, 호텔2박

3 **특급호텔숙박!! 오사카, 교토, 나라 3박4일**
799,000

※당시는 관광진흥법 및 관광거대위원회의 중요요 표시, 광고사항 협처리 준수합니다. (등록번호 : 제2009-1호)
※공통조건 : 여행 경비 1천 기준, 여행보증보험 가입(여행비용 : 1억 원, 국내여행 500만원), 증권(보증금) 지급, 관광 및 부수 비용으로, 유류할증료 포함
※여행기간 : 당일 출발 및 선박, 관광버스 / 렌터카
※상기 요금은 환율 및 항공요금 변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2억 영업보증보험 가입 / 여행공제 가입업체
※예약시 계약서(약관) 및 일정표를 반드시 참고하십시오.
※결제방법 : 전, 기사/가이드 봉사료, 선박권, 각종 비자비용 별도
※최소 출발인원 : 상황에 따라 다름

아름다운 여행이 시작되는 곳 **조이투어**

여론조사 ... 롤러코스터 타는 '안철수' 지지율의 비밀

창당 작업을 준비하고 있는 '안철수 신당'에 대한 여론 지지세가 만만치 않다.

하지만, 여론조사 질문 방식에 따라 지지세가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어 향후 신당이 창당돼 '안철수'라는 이름이 빠질 경우 여론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주목된다.

그동안 각종 언론사의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아직까지 실제와 없고, 창당도 되지 않은 정당 지지도가 60년 전통을 자랑하는 민주당을 10~15%포인트가량 앞서고 있고, 야권의 심장부인 광주에서는 민주당보다 2배가량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지난 대선 이후 등장한 이른바 '안철수 현상'이 새 정치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어지면서 '안 신당'에 대한 지지도가 높아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반면, 일각에서는 특정 정치인의 이름이 들어간 정당명을 여론조사에서 묻는 것은 '전대미문'의 사례라는 점에서 '안철수' 이름이 빠진 신당이 창당되면 지지도는 더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따라서 안철수 신당 효과가 향후 지

철수'란 특정 인물의 이름을 사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성 정당처럼 정치적 뜻을 지닌 정당명, 예를 들어 '새정치당' 등의 이름을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여론조사 결과 '안철수 신당'과 '새정치당'(가칭) 간 지지도 차이가 있을 것으로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모 여론조사 전문기관의 A팀장은 "현재 안철수 신당 지지도는 안철수라는 이름에 힘입은 경향이 있다"며 "만약 광역단체장 및 기초단체장 여론조사에서 '안철수 신당'후보를 사용하지 않고 현재 창당 작업을 준비 중인 '새정치추진위원회' 후보로 질문할 경우 지지도는 많이 빠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다른 여론조사 전문가 B씨는 "안철수 신당과 '정당명'이 정해진 신당'간 지지도 차이는 분명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유권자들이 안철수 의원이 창당한 신당이라는 사실을 아는 데는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안철수 신당' 때의 지지도를 복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